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차용의도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영향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orrowing Intention of Stock Investment Defaulters

김미라(Mi-Ra Kim), 황덕순(Duck-Soon Hwang)*, 홍은실(Eun-Sil Hong)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ebt-reuse intention of defaulters.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defaulters who used debt for stock investment. Debt-usag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ince they had different psychological backgrounds. A total of 712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stock=131 and no-stock=581) were analyzed using SP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 level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as the highest and the level of attitudes toward using debt was the lowest among the psychological factors in both groups.

Seco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as different according to age and income. No such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in attitudes toward using debt, subjective norms and behavioral intention in the stock group.

Third, behavioral intention was explained by attitudes toward using debt and subjective norms in the stock group. However, in the no-stock group, behavioral intention was explained by attitudes toward using debt,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pragmatical meaning in that they show the determinants of debt reuse by stock investment defaulters.

▲주제어(Key Words) :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차용태도(attitudes toward borrowing),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차용의도(borrowing intention)

I. 서론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계는 일생에 걸친 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고려하여 소득증대, 소비조절, 저

축 또는 부채사용 등의 재무적 선택을 통해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 원활한 현금의 흐름과 재무안정성은 일생동안 최적의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실행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으나,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인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NRF-2010-551-C00002).

* Corresponding Author : Duck-Soon Hwang,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500-757, Korea, Tel: +82-62-530-1321, E-mail: hds420@jnu.ac.kr

내부적인 도전에 더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라는 외부적인 도전으로 인해 개인 및 가계의 재무관리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저축만으로도 자금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과거에 비해, 현대에는 물가 상승과 이자율 하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가 개인 및 가계로 하여금 다른 투자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식투자 인구는 2011년 528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488만명 중 21.24%이며, 이는 2000년에 비해 약 6% 증가한 것으로 경제활동인구 5명 중에 1명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rea Exchange, 2013).

주식투자는 다른 투자 대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위험보유(risk-taking) 대안이기 때문에, 부채를 이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산이 아닌 비상금과 같은 개인적 자산이나 부채를 주식투자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Y.-S. Kim & J.-H. Kim, 2003), 최근 '스톡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과도한 부채를 사용하여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비조절, 자산상실 등 여러 가지 가계재무관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가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가계재무관리의 한 부분인 부채관리는 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유동성 증대 및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소득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미래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유동성이라는 이득을 주는 대가로 이자나 수수료 등의 직접 비용과 재무관리부담의 증가와 같은 간접비용이 따르며, 적절히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개인 및 가계의 측면에서는 연체 수수료와 신용사용의 제한, 신용등급저하, 상환을 위한 자산상실, 가족관계, 스트레스, 외부 스티그마 등의 비용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대여금 손실, 추심관련 비용과 같은 영업비용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채무재조정 비용, 내수위축 등의 문제를 내포함으로써 개인 및 가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말 991.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가계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향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또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상환능력에 비해 부채규모가 큰 과다채무자와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증가하였고,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와 저소득 가계의 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부채 감내력이 저하되어 가계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Bank of Korea, 2013).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은 비단 저소득 계층 뿐만 아니라, 보통 좋은 채무자로 고려되는 직장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영업자들도 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월소득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2007년 2%에서 2013년 3분기에 6%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부채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채무자 비중은 2008년 5.8%에서 2013년 3분기에 9.8%, 1억원 이상인 경우도 0.8%에서 3.4%로 높아져(Credit Counselling and Recovery Service, 2013), 이제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는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대되어감으로써 경제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부채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가계부채문제를 자신의 상환능력을 넘어서 부채를 무리하게 사용한 개인의 탐욕이나 가계재무관리 실패로 인한 개인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와 가계대출 확대전략이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기관의 문제 또는 이와 밀접하게 연결된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문제로 볼 것인가이다. 부채문제를 터부시하는 공동체문화는 부채문제가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개인의 일탈로 인한 것으로 개입을 통해 행동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개인 및 가계의 재무상황 또는 신용카드사용행태에 관한 정교한 자료들을 기초로 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노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규제의 완화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을 과도하게 증여하고 불완전판매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금융규제완화로 인해 신용공급이 과다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W. Kim & H. Kim, 2009).

개방하나 외환위기와 같은 사회환경적인 요소와 가족 구성의 변화나 질병과 같은 개별가계의 상황요소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인 것이므로 가계부채문제를 하나의 요인으로 단순화 또는 일반화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재무관리교육 및 상담과 같은 개별적인 개입보다는 전체 시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규제가 더 효율적일 것

이다. 그러나 주식투자자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들의 경우는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에 대한 갈망으로 다른 투자대안들에 비해 위험이 큰 투자대안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며, 여유자금투자라는 원칙을 어기고 부채사용으로 인한 위험까지 안은 개인의 가계채무관리의 실패라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채무관리교육 및 상담의 차원에서 주식투자자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특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효과적으로 부채관리 및 채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식투자자로 인한 부채문제는 주택마련이나 교육비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부채문제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으며, 아직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인 접근과 정책적인 접근이 모두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는 부채보유 및 부채규모/상환액(E. Baek & G. Hong, 2004; Y. Chien & S. A. DeVaney, 2001; J. Crook, 2001; E. C. Lawrence & G. Elliehausen, 2008; S. Livingstone & P. Lunt, 1992; S.-J. Moon, S.-M. Kim, & J.-S. Yang, 1996; Y.-A. Sung, 2006; G. Wolswijk, 2006; T. Yilmazer & S. A. DeVaney, 2005), 객관적/주관적 부채부담(S. Brown, K. Taylor, & S. W. Price, 2005; E. S. Chae & Y.-A. Sung, 2000; H. Choe, 2001; O. May, M. Tudela, & G. Young, 2004; Y.-A. Sung & S.-J. Yang, 1995; C. A. Wasberg, T. K. Hira, & A. M. Fanslow, 1992), 저축이나 지출에 미치는 영향(H. Choe, 1996; M. J. Hamburger & B. Zwick, 1977; K. Raymond & O. Jr. Capps, 1994; Y. Shim, 1993; Y. Shim, 1998), 가계채무구조 및 포트폴리오(W. K. Bryant, 1986; D. Godwin, 1996; S. Lee & Y.-A. Sung, 2007; K. Park & K. Rhee, 2002; C. G. Prather & J. Huyer, 1996; Y.-A. Sung, 2000)에 관한 연구와 연체나 파산 등과 같은 부채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S. Bridges & R. Disney, 2004; H. Choe & H. Cho, 2008; M.-R. Kim & H.-S. Kim, 2011; M.-R. Kim & D.-S. Hwang, 2008; K. Huh, 2000; J. M. Lown & B. R. Rowe, 2003; K. Rhee & K. Park, 1997; E.-Y. Rhee & E. Huh, 2005; Y.-A. Sung & H.-Y. Jung, 2008; J. Stavins, 2000; P. Webley & E. K. Nyhus, 2001)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H. Choe & Y.-A. Sung, 2000, 2001)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부채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계하고 소비지출이나 가계채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와 부채관련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찾고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연구들은 연령이나 교육수준,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변인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국외의 연구들은 이에 더하여 부채에 대한 태도나 부채취득용이성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S. Y. Chien & S. A. DeVaney, 2001; D. Godwin, 1996; S. E. G. Lea, P. Webley, & R. M. Levine, 1993; S. E. G. Lea, P. Webley, & C. M. Walker, 1995; S. Livingstone & P. Lunt, 1992; A. C. Sullivan & D. D. Worden, 1986; P. Webley & E. K. Nyhus, 2001), 사회적·경제적 변인의 영향력은 비교적 적으며 대신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이 커서 부채사용에 있어서 심리적 변인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나(S. Livingstone & P. Lunt, 1992), 국내의 연구들은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 연구(E. Baek & G. Hong, 2004; I.-S. Ju & Y.-S. Lee, 1996; E.-Y. Rhee & E. Huh, 2005; Y.-A. Sung, 2006; Y.-A. Sung & S.-J. Yang, 1995)를 제외하고는 심리적 변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부채의 사용이 보다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는 심리적 변인을 포함하여 관련변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식투자자로 인하여 부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차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계획적 행동이론에 기초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심리적 변인들이 차용의도에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이미 부채상환에 실패하여 신용이 제한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들의 추가적인 부채사용은 개별 가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차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채무관련 소비자교육과 정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부채의 정의

가계부채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변인들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영향의 방향이 연구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서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각 연구에서

사용된 가계부채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계는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기존 저축을 사용하거나 육구충족을 나중으로 미루거나 또는 타인의 자금을 빌려 사용한 후 상환하는 방법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가계부채는 타인의 자금을 빌려 사용한 후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 발생한, 갚아야 하는 돈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신용(credit), 대출(loan), 차용(borrowing), 부채보유상태(indebtedness), 부채상환책임(liability)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부채(debt)와 관련이 있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 공과금을 연체하는 경우처럼, 돈을 빌리는 행동 즉 차용(borrowing)이 없이도 부채(debt)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차용(borrowing)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S. Brown et al., 2005) 반면, 부채(debt)는 비계획적이고 비의도적이며, 해당 개인 및 가계뿐만 아니라 신용(credit)을 제공한 측(예를 들면, 한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으로 가는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P. Webley & E. K. Nyhus, 2001).

갚아야 하는 부채를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부채보유상태(indebtedness)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생활주기(life-style)와 개인적인 성향(dispositions)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먼저 생활주기에 따라 소득과 지출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 부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 및 가계의 지출수준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소득하락이나 지출증가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면 소득에 지출을 맞추기보다 차용을 통해 지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성장하면서 시간지향이나 행동통제능력과 같은 여러 가지 감내성향을 개발하게 되는데, 현재지향형인 사람은 육구의 충족을 뒤로 미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축보다는 대출이나 할부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행동통제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과소비와 같이 현재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P. Webley & E. K. Nyhus, 2001).

이러한 개인적인 측면 외에 부채가 가진 규범적인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전반적으로 부채보유상태(indebtedness)를 부끄러운 것으로 또는 비난을 받을만한 것으로 여기던 과거에 비해, 현대는 신용사회라고 일컬어 질 만큼 부채의 사용이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꺼리는 경향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차용이나 부채보유에 대

해 갖게 되는 부담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복지 차원에서 분명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또는 갚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신용(credit)을 바탕으로 대출(loan)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 차용(borrowing)이며, 그 결과 발생한 갚아야 하는 돈이 부채(debt)이다. 학문적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여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채는 위에서 살펴본 부채관련 용어들 중에서 차용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2. 가계부채의 분류

다음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공공기관들이 실시한 조사의 부채 분류 또는 측정범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부채관련 용어는 각 조사에서 사용된 것을 가능한 한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일관성을 위해 변경한 것도 있음을 밝힌다.

먼저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들은 대체로 가계대출과 구매신용을 포함하는 소비자부채를 연구목적에 따라 2가지에서 8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S.-J. Moon, S.-M. Kim, & J.-S. Yang, 1996; K. Park & K. Rhee, 2002; Y.-A. Sung, 2000; Y.-A. Sung & H. Choe, 2000). 이 중 K. Park and K. Rhee (2002)의 연구에서는 부채를 크게 공금융, 사금융, 구매신용으로 크게 나누고, 공금융은 은행 대출금, 보험회사 대출금, 기타 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하는 금융기관대출과 가족원이 다니는 직장에서의 대출과 같은 비금융기관 대출로 구성하였으며, 사금융은 계상환예정금과 사채빚으로, 구매신용은 월부와 외상 매입금의 8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은행부채(23.5%), 월부(17.3%), 사채(15.8%)의 순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각각 공금융, 구매신용, 사금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차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서베이를 통해 분석 자료를 수집한 E. S. Chae and Y.-A. Sung(2000)의 연구에서는 금융기관대출, 사채, 신용카드,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 이미 탄 계로 구분하였으며,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를 분석한 Y.-A. Sung and S.-J. Yang(1995)의 연구에서는 은행, 증권 및 보험회사, 신용협동기구,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한 금액, 사채 쓴 금액 및 계 탄 금액으로 구분하였다.

통계청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대체로 주택관련부채를 별도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소비자부채는 가계대출과 구매사용으로 구분하였으며(H. Choe, 2001; S. Lee, 2005;

Table 1. Division of Debt by Year

Researcher	Year	Division of Debt		Note
Y. Shim	1993	Consumer credit	Mortgages (excluded)	1988 CES
Y.-A. Sung & S.-J. Yang	1995	Loan(from bank, security and insurance, credit union, saving banks), private debt and gye		1990 Household finance use study
S.-J. Moon et al.	1996	Debts from financial institutes, private sources		1993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Y.-A. Sung	1996	Borrowed money, installment and charge, gye(excluded)		1982-1992 Household income & expenditure survey
Y.-A. Sung	2000	Debts from banks, other financial institutes, employers, private sources, gye, retailers		1996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Y.-A. Sung & H. Choe	2000	"		"
E. S. Chae & Y.-A. Sung	2000	Debts from financial institutes, credit card, debts from private sources, installment and charge, gye(excluded)		Survey
H. Choe	2001	Consumer credit, purchasing credit	Housing debt	1999 Household income & expenditure survey
K. Park & K. Rhee	2002	Formal debts(debts from financial institutes:bank, insurance company, other financial institutes; non financial institutes:loans from business), informal debts(debts from private sources, gye), purchasing credit(installment, charge)		1997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S. Lee	2005	Other debts excluding housing mortgages, installment and charge	Housing debt	2002 Household income & expenditure survey
Y.-A. Sung	2006	Debts from financial institutes, non financial institutes, private sources, gye, others	Deposit for renting house	2000, 2003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W. Kim & H. Kim	2009	Debts from financial institutes, private sources		2000-2007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Y.-A. Sung	2010	Debts for consumption(daily, wedding, educational, medical expense, repaying debt), debts for increasing assets(buying house, renting, deposit of renting house, buying automobile, security investment), others		2006 Household wealth survey
A. C. Sullivan & D. D. Worden	1986	Consumer debt	Mortgages	Survey
J. Crook	2001	Other real estate debt, other lines of credit(not secured on home), credit card debt, installment loans, loans from business, other debts	Housing debt (mortgages, home equity loans and HELOCS)	1995 SCF
O. May et al.	2004	Consumer debt(hire purchase agreement, personal loan, overdraft, credit card, store card, catalogue or mail order agreement, student loan, student loan, DSS social fund loan, other loans)	Mortgages	Survey
S. Brown et al.	2005	Consumer debt	Mortgages	1995 ,2000 BHPS
T. Yilmazer & S. A. DeVaney	2005	Installment, credit card, others	Mortgages	2001 SCF
Bank of Korea	2013	Household loan, purchasing credit		State of the household debt report
Korea Labor Institute	2013	Debts from financial institutes, non financial institutes, private source, gye, others	Deposit for renting hous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Debts from financial institutes(loan from business, overdraft included), credit card, private sources, charge and gye, other debts	Deposit for renting hous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3	Government backed mortgage, student loan, financial institutes mortgages, financial institutes loan, credit card, loan, others	Deposit for renting hous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Statistics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ank of Korea	2013	Financial liabilities(secured loan, credit loan, credit cardloan, charge and installment, others)	Deposit for renting house	Household finance · welfare survey

Y.-A. Sung, 1996), Y.-A. Sung(2010)은 부채용도별로 소비성 부채로 분류되는 생활비마련, 교육비마련, 의료비마련, 결혼자금마련, 부채상환과 자산관련부채로 분류되는 부동산구입, 전월세보증금마련, 자동차구입, 임대보증금, 증권투자자금마련 그리고 기타의 11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증권투자자금마련을 위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순위는 11위로 보유율은 가장 낮았지만, 보유규모는 임대보증금, 부동산구입에 이어 3위로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1988년 소비지출조사(CES) 자료를 사용한 Y. Shim(1993)은 가계부채를 소비자부채와 주택담보부채로 구분하였으나,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부채만을 분석하였다.

국외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부채와 주택담보부채로 구분하고, 소비자부채를 연구에 따라 2가지~8가지로 구분하였으며(S. Brown et al., 2005; J. Crook, 2001; O. May et al., 2004; A. C. Sullivan & D. D. Worden, 1986; T. Yilmazer & S. A. DeVaney, 2005), 이 중 S. Brown et al.(2005)은 2000년에는 1995년에 비해 소비자부채는 50%이상, 주택담보부채는 약 30% 증가하였으며, 이 중 소비자부채는 소비자복지를 6% 감소시켰으나 주택담보부채는 소비자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국내의 연구들은 대체로 주택관련 부채를 포함하여 부채원천에 따라 공금융, 사금융, 구매신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세부항목들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외의 연구들은 가계부채를 주택관련여부에 따라 크게 소비자부채와 주택관련부채로 구분하고 이 중 소비자부채를 직접 돈을 빌리는 가계대출과 신용카드부채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Table 1> 참조).

다음으로 기관들이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먼저 Bank of Korea(2013)는 가계부채를 가계가 은행이나 비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가계대출과 외상(신용)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판매신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가계부채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94.6%(937.9조)이고, 판매신용은 5.4%(53.8조)라고 보고하였다.

Statistics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ank of Korea(2013)는 부채를 크게 금융부채(68.2%)와 임대보증금(31.8%)으로 나누고, 금융부채를 담보대출(54.8%), 신용대출(11.0%),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 기타부채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나머지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 기타부채의 비율이 2.4%였다고 보고하였다. 각 분류의 세부항목은 <Table 2>와 같다.

Korea Labor Institute(2013)는 1998년에는 총부채액을 조사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부어야 할 계, 기타, 전세금 임대보증금의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3)는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포함), 카드빚, 일반사채, 외상 및 미리 탄 계돈, 기타부채,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의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조사원 지침에서 사채를 이자가 있는 경우는 일반사채 항목에, 이자가 없는 경우는 기타부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할부구매도 카드구매의 경우는 카드빚에 현금할부구매의 경우는 기타부채에 포함시켜 조사하게 하였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2013)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기타의 7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조사원 지침에서 신용카드 관련 대출에 현금서비스, 카드로, 대환대출 등을 포함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사채)이나 이미 탄 계는 기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기관들은 가계부채를 크게 소비자부채와 돌려주어야 할 전세(임대)보증금의 2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 소비자부채는 가계대출(소비자금융)과 판매(구매)신용 등을 포함하여 세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부채원천별 분석에 비해서 부채용도별 분석은 많이 실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Y.-A. Sung(2010)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가진 가계는 서로 다른 용도로 부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채의 분류에 부채용도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도별 분류로서 주식투자형과 비주식투자형으로 구분한다.

3. 가계부채의 관련변인 고찰

가계의 현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채를 사용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에는 연령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인뿐만 아니라 부채사용에 대한 태도나 준거집단의 규범, 차용에 대한 통제력과 같은 심리적 변인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사회·경제적 변인

차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채보유와 관련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에 대해 고찰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채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Table 2. Debt Classification System

Selection	Division	Group	Item
Debt	Financial debt	Mortgages	· Residential mortgage, non residential mortgage, savings deposit · installment deposit · insurance · fund · bond security, others(rights on lease, letter of credit, automobile etc.)
		Credit loan	· Deficit account included
		Credit card loan	· Cash service, card loan, change loan etc.
		Charge & installment buying	· Outstanding balance of charge, installment buying, card point pre-discount etc. (a lump sum credit card outstanding excluded)
		Others	· Fraternity dues
Deposit for rent	Rent for housing	· Rent of a part of housing	
	Rent for non housing	· Rent of non housing, building, land	

Source : Statistics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ank of Korea(2013)

가지고 있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부채보유 경험이 더 많은 경향이다(K. Huh, 2002). 부채의 용도에 따라 부채가 필수품목에 집중되는 생계형이나(S. Lee & Y.-A. Sung, 2007), 교육비마련과 부채상환을 위한(Y.-A. Sung, 2010) 부채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많다고 한 연구들과 같이, 성별과 부채는 부채의 유형이나 용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남성의 부채보유가능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Y.-A. Sung, 2006; Y.-A. Sung & H. Choe, 2000; T. Yilmazer & S. A. Devaney, 2005), 특히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과잉확신 성향이 강하고 공격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B. M. Barber & T. Odean, 2002), 증권투자형부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Y.-A. Sung(2010)의 연구를 포함한 몇몇 연구들은 성별과 부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J. Crook, 2001; E. C. Lawrence & G. Elliehausen, 2008; S.-J. Moon et al., 1996; Y.-A. Sung & S.-J. Yang, 1995).

많은 연구들이 연령이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부채수요가 더 많은 부적의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J. Crook, 2001; W. Kim & H. Kim, 2009; O. May et al., 2004; R. E. P. Steidle, 1994; Y.-A. Sung & S.-J. Yang, 1995; P. Webley & E. K. Nyhus, 2001; T. Yilmazer & S. A. Devaney, 2005; L. Y. Zhu & C. B. Meeks, 1994). 그러나 연령증가에 따라 부채수요가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다시 감소하는 역U자형의 관계를 가진다고 한 연구(H. Choe, 1996)나 증권투자형부채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 Y.-A. Sung(2010)의 연구를 포함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연

구도 있다(Y. Chien & S. A. DeVaney, 2001; E. C. Lawrence & G. Elliehausen, 2008).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대체로 젊은 사람은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아 부채수요가 높을 수 있으며, 노년기에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더라도 중년기를 거치면서 축적한 순자산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차용의도가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수준과 부채는 증권투자형부채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Y.-A. Sung(2010)의 연구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교육수준과 부채는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E. Baek & G. Hong, 2004; Y. Chien & S. A. DeVaney, 2001; W. Kim & H. Kim, 2009), L. Y. Zhu and C. B. Meeks(1994)는 교육수준과 부채태도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에 포함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사용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채규모가 큰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부적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R. E. P. Steidle, 1994)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E. C. Lawrence & G. Elliehausen, 2008; Y.-A. Sung & S.-J. Yang, 1995; P. Webley & E. K. Nyhus, 2001).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에 비해 신용사용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보다 높을 것이므로 차용의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과 부채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취업여부(취업과 비취업)와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직업종류별로 조사되어 왔는데, 취업의 경우가 비취업의 경우보다(E. Baek & G. Hong, 2004; J. Crook, 2001; K. Huh, 2002; Y.-A. Sung, 2006; L. Y. Zhu & C. B. Meeks, 1994), 정규직의 경우가 비정규직의 경우에 비해(S.-J. Moon et al., 1996), 자영업자의 경우가 임금노동자의 경우에 비해(W. Kim & H. Kim, 2009), 전문·사무직의 경우가 그

외의 경우에 비해(Y. Chien & S. A. DeVaney, 2001) 대체로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비해 주택담보부채나 가계대출부채, 카드부채가 더 적고 기타부채는 더 많은 경향이며(T. Yilmazer & S. A. Devaney, 2005), 증권투자형 부채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보유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Y.-A. Sung, 2010), 부채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과 부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Y.-A. Sung & S.-J. Yang, 1995; O. May et al., 2004). 직업은 소득의 규모나 안정성 뿐만 아니라 부채원천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부채수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부채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관련변인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소득이 증권투자형부채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Y.-A. Sung(2010)의 연구 외에도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소득과 부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E. Baek & G. Hong, 2004; J. Crook, 2001; W. Kim & H. Kim, 2009; G. Wolswijk, 2006), 소득 증가에 따라 부채보유확률이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다시 감소하는 역U자형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으며(Y.-A. Sung & S.-J. Yang, 1995), 부적인 관계 또는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Y. Chien & S. A. DeVaney, 2001; E. C. Lawrence & G. Elliehausen, 2008; S. Livingstone & P. Lunt, 1992; A. C. Sullivan & D. D. Worden, 1986; P. Webley & E. K. Nyhus, 2001). 소득은 담보제공과 같은 신용접근성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차용의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심리적 변인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사용자의 차용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I. Ajzen and M. Fishbein(2005)은 대상에 대한 태도와 대상 관련 행동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고, 일반적 행동의 경우 대상에 대한 태도가 특정 행동의 경우 행동에 대한 태도가 행동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 부채사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부채태도나 신용태도가 고려되었으며, 지각된 행동통제는 신용거부경험과 부채취득용이도(E. Baek & G. Hong, 2004; I.-S. Ju & Y.-S. Lee, 1996; A. C. Sullivan & D. D. Worden, 1986) 등이 외부환경적 특성 변인으로 분류되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주관적 규범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채태도와 신용거부경험, 부채취득용이도에 관한 부채사용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본 다음,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동통제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태도와 부채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성있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채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부채보유가능성이 높으며, 부정적일수록 부채보유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E. Baek & G. Hong, 2004; S. Y. Chien & S. A. DeVaney, 2001; D. Godwin, 1996; S. E. G. Lea, P. Webley, & R. M. Levine, 1993; S. Livingstone & P. Lunt, 1992; A. C. Sullivan & D. D. Worden, 1986; P. Webley & E. K. Nyhus, 2001), 유의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Y.-A. Sung & S.-J. Yang, 1995; S. E. G. Lea, P. Webley, & C. M. Walker, 1995). 또한 A. C. Sullivan and D. D. Worden(1986)과 E. Baek and G. Hong(2004)은 부채에 대한 태도가 부채보유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부채규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호의적인 부채태도가 반드시 과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소득이 불충분하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 또는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평가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의 사용이 거부될 수 있고, 이러한 거부경험은 향후 차용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용거부경험은 부채보유가능성에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A. C. Sullivan and D. D. Worden(1986)은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고, E. Baek and G. Hong(2004)은 가계대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카드부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과거 차용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카드부채보유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I.-S. Ju and Y.-S. Lee(1996)는 가족생활주기, 교육수준, 주부취업, 소득수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부채취득용이도, 대출거절경험의 외부환경적 특성 중에서 대출거절경험만이 부채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채규모가 개인 및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예측이 아닌 행동발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차용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더 호의적일수록, 차용에 대한 통제수준이 더 높을수록 차용의도가 더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으로써 행동수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대체로 행동에 대한 태도가 주관적 규범에 비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

거나, 주관적 규범의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인 고려가 사회적 압박을 누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과(I. Ajzen & T. J. Madden, 1986; L. Gentry & C. Roger, 2002; Y.-J. Kim, 2001; H. Lee, 1997; H. Lee & Y. Kim, 2000; R. L. Oliver & W. O. Bearden, 1985), 반대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더 커서 주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개인적 선호의 영향보다 더 크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M.-R. Kim & H.-S. Kim, 2011; J. Rise, 1992).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결정되는 행동의도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제안하는 합리적 행동이론은 대상이 되는 행동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율통제(voluntary control) 하에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많은 행동들이 예견된 또는 예견되지 못한 장애물로 인하여 실제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용의 경우, 신용문제나 담보의 유용성 문제가 실제 차용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제이슈는 두 요소를 포함한다. 첫 번째 요소는 자아효능감 즉, 행동수행 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기 신뢰로서, 내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요소는 시간, 돈 또는 다른 특별한 자원 같은 행동물입에 요구되는 자원의 유용성을 반영하는 “촉진조건”으로서, 외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더하여,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는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대체로 행동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은 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거나(I. Ajzen & T. J. Madden, 1986; C. J. Armitage & M. Conner, 2001; J. Choi & K.-J. Kim, 2003; G. Godin & G. Kok, 1996; K. Kim, M. Reicks, & S. Sjoberg, 2003),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I. Ajzen, T. C. Brown, & F. Carvajal, 2004; S. Bamberg, I. Ajzen, & P. Schmidt, 2003; M. Conner, W. Rachel, & S. Close, 1999; R. East, 1993; Y.-J. Kim, 2001; P. Norman & H. Sarah, 2004), 특히 주식투자자의도에 대해 조사한 R. East(1993)는 지각된 행동통제 변인을 포함하기 전에는 설명된 변량이 36%였는데 지각된 행동통제 변인을 포함한 결과 50%로서, 지각된 행동통제가 설명력 증가에 중요한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력이 약하거나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으며(T. Hansen, J. M. Jensen, & H. S. Solgaard, 2004; H. Lee & Y. Kim, 2000; R. G. Netemeyer & S. Burton, 1990), 예외적으로 S. Sutton, D. McVey, and A. Glanz(1999)와 Z. Fekadu and P. Kraft(2001)는

주관적 규범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불일치한 결과들은 대상이 되는 행동이나 개인의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행동지향적이거나(R. P. Bagozzi, H. Baumgartner, & Y. Yi, 1992) 개인주의적인 경우(D. Abrams, K. Ando, & S. Hinkle, 1998), 과거 경험이 있거나(M. Hill, L. Mann & A. J. Wearing, 1996) 개인적인 소비자 경우(P. W. Miniard & J. B. Cohen, 1983)에는 행동에 대한 태도가, 반대의 경우에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차용은 개인적임과 동시에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차용태도보다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의 의지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력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주식투자로 인해 부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향후 부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차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적 행동이론에 기초한 차용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차용의도의 4가지 심리적 변인들의 수준을 살펴본 후, 차용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차용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주식투자로 인해 부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과 그 외의 집단(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주식투자로 인해 부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심리적 변인들의 일반적 수준은 집단별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경제적 변인들에 따른 심리적 변인들의 차이는 집단별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차용의도에 대한 심리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집단별로 어떠한가?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이다. 계획적 행동이론의 4가지 구성변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Aact), 주관적 규범(SN), 지각된 행동통제(PBC), 행동의도(BI) 중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는 주식투자로 인한 부채문제를 가진 조사대상자가 향후에 또 부채를 사용하려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에 따라 차용태도와 차용의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a 5-point Likert scale)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차용태도(Aact)는 차용에 대한 개인의 호의적/비호의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식에 기초한 도구적인 것과 감정에 초점을 둔 경험적인 것의 두 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I. Ajzen and B. L. Driver(1992)의 지적에 따라 R. East(1993)와 H. Lee and Y. Kim(200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도구적 요소로서 '유익하다'와 '가치있다'의 2문항과 경험적 요소로서 '마음에 든다'와 '좋다'의 2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69로서 J. C. Nunnally(1987)가 탐색수준의 척도에 제시한 기준인 .70에 미치지 못해, '마음에 든다' 문항을 제외하고 Cronbach's α 계수가 .72가 되어 이를 제외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용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SN)은 중요한 타인이 주어진 개인의 행동수행을 승인 또는 거부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R. East(1993)와 H. Lee and Y. Kim(200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족'과 '친구들', '그 외 내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구분하여 이들의 차용 승인가능성을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차용에 대해 중요한 타인들이 승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7이다.

지각된 행동통제(PBC)는 개인의 행동수행을 촉진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가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각된 행동통제의 측정에는 개인적 능력과 환경적 기회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R. East(1993)의 제안에 따라 H. Lee and Y. Kim(200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개인적 능력 요소로서 '담보제공 능력'과 '대출방법 관련 지식'의 2문항과 환경적 기회 요소로서 '내가 돈을 빌리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의 1문항을 포함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차용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1이다.

마지막으로 차용의도(BI)는 향후 돈을 또다시 빌릴 것

인가에 대한 주관적인 의도를 의미하며, '1년 이내'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언제라도' 돈을 다시 빌릴 의도가 있는가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용의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주식투자로 인하여 부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시부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로 조사대상자를 한정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여러 금융회사에 과다하게 채무를 지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신청인과 보증인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지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통해 신용회복지원 여부가 확정되며, 확정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하고 승인된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조정 합의를 작성하기에 앞서 이들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비조사와 본 조사 모두 교육시간에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예비조사는 2010년 9월에 2회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1년 1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7주 동안 실시하였다. 교육생 전체에게 실시하여 회수된 질문지는 총 730부였으며, 이중 부실응답을 제외하여 총 712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였으며, 신뢰도분석,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교차분석, t-검증, 일원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징은 <Table 3>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들(n=712) 중에서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는 18.4%(n=131)이었고,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는 81.6%(n=581)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두 집단 모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약 50%로

Table 3. Socio · econom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	Categories	Stock		No-stock		X ²
		n	%	n	%	
		(131)	(100.0)	(581)	(100.0)	
Gender	male	66	50.4	296	50.9	0.01 -
	female	65	49.6	285	49.1	
Age	~30	24	18.3	88	15.1	6.39 -
	31~40	67	51.2	246	42.4	
	41~50	22	16.8	139	23.9	
	51~	18	13.7	108	18.6	
Education	~middle	21	16.0	87	15.0	1.21 -
	high	70	53.4	336	57.8	
	college~	40	30.6	158	27.2	
Job	service	21	16.0	149	25.6	26.55***
	production	66	50.4	167	28.7	
	office · professional	18	13.7	68	11.7	
	others	26	19.9	197	34.0	
Income*	~1,000,000	38	29.2	199	34.3	5.59 -
	~2,000,000	71	54.6	327	56.4	
	2,000,000~	21	16.2	54	9.3	

* 무응답제의, *** $p < .001$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연령은 두 집단 모두 31~40세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두 집단 모두 고등학교졸업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직업별 분포는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생산직의 비율이,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기타(무직, 주부, 학생 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두 집단 모두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의 비율이,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직업만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생산직과 사무·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서비스직과 기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 증권투자형부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Y.-A. Sung(2010)의 연구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2. 심리적 변인들의 일반적 수준

<연구문제 1>에 따라 집단별 심리적 변인들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보았다(<Figure 1> 참조). 먼저 차용태도(Aact)는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가 평균 2.71점(SD=0.64)이었고,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평균 2.32점(SD=0.77)으로서,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가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 비해 차용태도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5.31, p<.001$).

다음으로 주관적 규범(SN)은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가 평균 2.70점(SD=0.67)이었고,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평균 2.20점(SD=0.78)으로서,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가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 비해 차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6.60, p<.001$).

지각된 행동통제(PBC)는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가 평균 2.79점(SD=0.73)이었고, 비주식투자형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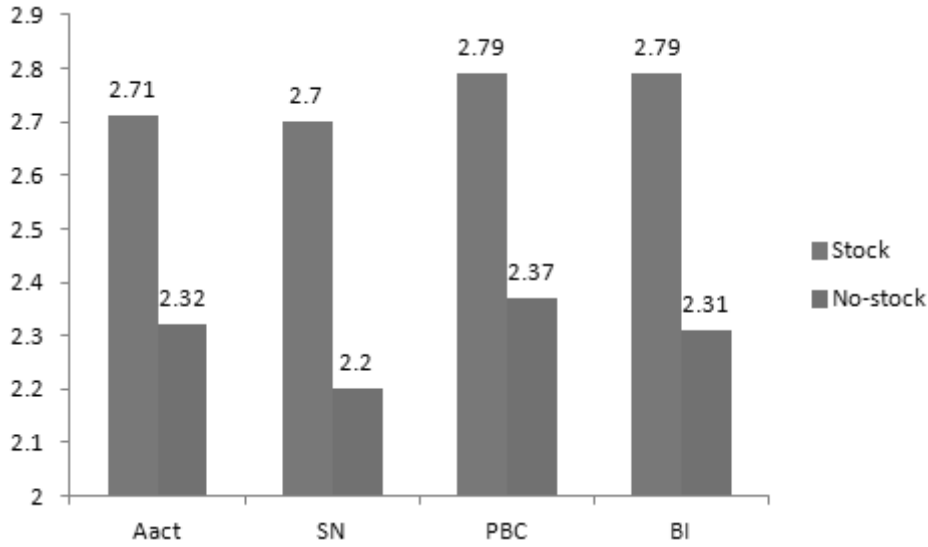


Figur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Psychological Variables

불이행자의 경우는 평균 2.37점(SD=0.75)으로서,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가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 비해 차용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5.92, p<.001$).

마지막으로 차용의도(BI)는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가 평균 2.79점(SD=0.82)이었고,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평균 2.31점(SD=0.99)으로서,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가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 비해 차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5.12, p<.001$).

이상과 같이,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가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 비해 차용태도(Aact)와 주관적 규범(SN), 지각된 행동통제(PBC), 차용의도(BI)의 모든 심리적 변인들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변인들의 차이 분석

<연구문제 2>에 따라 집단별 사회·경제적 변인들에 따른 심리적 변인들의 차이를 t-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Table 4> 참조).

먼저 차용태도(Aact)는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기혼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채행동에 대한 소비자경험 및 태도를 분석한 K. Huh(2002)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용태도

(attitudes on the activities regarding borrowing money)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그 외 연령, 교육수준, 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한 것과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교육수준($F=3.01, p<.05$)과 직업($F=10.33, p<.001$)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고등학교졸업의 경우가 중학교졸업 이하의 경우보다, 생산직의 경우가 서비스직에 비해 차용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규범(SN)은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직업($F=7.43, p<.001$)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생산직의 경우가 서비스직에 비해 자신의 차용에 대해 타인의 승인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지각된 행동통제(PBC)는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연령($F=3.48, p<.01$)과 소득수준($F=3.10, p<.05$)에 따라,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연령($F=2.69, p<.05$)과 직업($F=9.3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30·40대의 경우가 더 젊거나 더 나이든 경우에 비해,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의 경우보다 차용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는 30세 이하의 경우가 31세 이상의 경우에 비해, 생산직의 경우가 서비스직에 비해 자신의 차용에 대한

Table 4. Analysis of Socio · economic Variables on Psychological Variables

Group/Var	Aact		SN		PBC		BI	
	M/Scheffé	F/t	M/Scheffé	F/t	M/Scheffé	F/t	M/Scheffé	F/t
Stock/ Gender								
male(66)	2.79	1.29	2.69	0.26	2.90	1.66	2.80	0.08
female(65)	2.63	-	2.72	-	2.69	-	2.78	-
Age								
~30(24)	2.67		2.68		2.49 a		2.77	
31~40(67)	2.73	0.64	2.74	0.22	2.94 b	3.48 **	2.82	0.08
41~50(22)	2.83	-	2.71	-	2.92 b		2.73	-
51~(18)	2.54		2.59		2.52 ab		2.78	
Education								
~middle(21)	2.63	0.67	2.56	0.85	2.51	1.93	2.64	2.19
high(70)	2.78	-	2.77	-	2.86	-	2.93	-
college~(40)	2.63		2.67		2.83		2.63	
Job								
service(21)	2.95		2.84		2.79		2.83	
production(66)	2.69	1.14	2.61	0.85	2.79	0.28	2.77	0.05
office · prof(18)	2.69	-	2.80	-	2.93	-	2.81	-
others(26)	2.59		2.76		2.72		2.81	
Income								
~1,000,000(38)	2.79	0.38	2.77	0.44	2.75 ab	3.10 *	2.74	1.17
~2,000,000(71)	2.69	-	2.69	-	2.72 a		2.89	-
2,000,000~(21)	2.63		2.60		3.16 b		2.60	
No-stock/ Gender								
male(296)	2.35	1.05	2.22	0.50	2.39	0.43	2.28	0.77
female(285)	2.28	-	2.19	-	2.36	-	2.34	-
Age								
~30(88)	2.34		2.31		2.53 a		2.45 a	
31~40(246)	2.34	0.23	2.22	1.18	2.37 ab	2.69 *	2.38 ab	3.57 **
41~50(139)	2.30	-	2.12	-	2.25 b		2.08 b	
51~(108)	2.28		2.18		2.40 ab		2.35 ab	
Education								
~middle(87)	2.20 a	3.01 *	2.11	2.65	2.34	0.26	2.45	1.59
high(336)	2.38 b		2.27	-	2.39	-	2.32	-
college~(158)	2.24 ab		2.12		2.35		2.22	
Job								
service(149)	2.14 a		1.97 a		2.19 a		2.15 a	
production(167)	2.47 b	10.33 ***	2.45 b	7.43 ***	2.57 b	9.30 ***	2.65 b	4.98 **
office · prof(68)	2.26 ab		2.17 a		2.43 ab		2.20 a	
others(197)	2.34 ab		2.18 ab		2.33 ab		2.19 a	
Income								
~1,000,000(199)	2.24	1.59	2.11	2.41	2.32	1.27	2.28	0.17
~2,000,000(327)	2.36	-	2.26	-	2.38	-	2.32	-
2,000,000~(54)	2.33		2.21		2.50		2.35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Regression of Aact, SN, PBC on Borrowing Intention

Var	Stock			No-stock		
	B	β	t - value	B	β	t - value
Aact	.334	.285	3.238**	.208	.161	3.943***
SN	.400	.332	6.657***	.392	.309	6.837***
PBC	.033	.030	0.353-	.445	.333	8.415***
Constant		.710			-.091	
F-value		18.51***			185.04***	
adjusted-R ²		.288			.488	

** $p < .01$, *** $p < .001$

통제력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차용의도(BI)는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연령($F=3.57, p<.01$)과 직업($F=4.98,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30세 이하의 경우가 31세 이상의 경우에 비해, 생산직의 경우가 다른 직업들에 비해 향후 부채를 사용하고자 하는 차용의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심리적 변인들이 차용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3>에 따라 집단별 차용의도(BI)에 차용태도(Aact)와 주관적 규범(SN), 지각된 행동통제(PBC)가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차용태도(Aact)와 주관적 규범(SN), 지각된 행동통제(PBC)를 독립변인으로, 차용의도(BI)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분산확대인자가 모두 1.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는 차용태도($\beta=.285, p<.01$)와 주관적 규범($\beta=.332, p<.001$)이 차용의도(BI)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차용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자신의 차용에 대해 타인의 승인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차용의도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두 변인들의 설명력은 28.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의도에 대해 태도보다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더 커서 개인적 선호가 미치는 영향보다 주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한 M.-R. Kim and H.-S. Kim(2011)의 연구와 J. Rise(1992)의 연구 그리고 주관적 규범, 행동

에 대한 태도의 순으로 영향력을 가지며,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Sutton et al. (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는 차용태도($\beta=.161, p<.001$)와 주관적 규범($\beta=.309, p<.001$), 지각된 행동통제($\beta=.333, p<.001$)가 차용의도(BI)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차용태도가 호의적일수록, 주관적 규범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차용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차용의도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세 변인들은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차용의도 변량을 48.8%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차용의도에는 개인의 선호와 주변인의 승인가능성도 영향력을 가지지만 차용에 대한 통제력 지각의 영향력 또한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행동의도에 대해 지각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태도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한 S. Bamberg et al.(2003)의 연구와 R. East(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식투자로 인하여 부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차용의도 즉, 이들이 향후 부채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가와 차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식투자로 인해 부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로 인해 부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이 차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식투자로 인해 부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주식

투자형 채무불이행자)과 그 외의 집단(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와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가 모두 지각된 행동통제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차용태도, 주관적 규범의 순이었고,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가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 비해 모든 심리적 변인들의 수준이 높았다. 즉, 더 호의적인 차용태도를 갖고, 주변인들의 차용승인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차용에 대한 지각된 통제력의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차용태도, 주관적 규범, 차용의도는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각된 행동통제는 연령과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30·40대의 경우, 소득이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차용행동에 대해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차용태도는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 주관적 규범은 직업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와 차용의도는 연령과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차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차용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차용태도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는 지각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 차용태도의 순으로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의 용도에 따라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부채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은 부채용도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식투자형의 차용의도에 대해 차용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차용태도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채관리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평가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체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참여자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규모의 토론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록 개인이 실행하는 재무활동이라도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 구성원들의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식투자활동은 개인비상금이나 부채를 사용하여 다른 가계 구성원들 몰래 실시하는 것은 성패를 불문하고 가족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부의 공동의사결정 나아가 가족원 모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 원리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차용의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는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지각된 행동통제가 포함되지 않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차용의도는 금융기관접근성 또는 다양한 부채원천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차용에 대해서도 용도별로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결과는 대상을 보다 세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표집방법이나 분석방법을 달리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차용의도에 차용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같은 심리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제도를 고안하고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학계에서는 적절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나 기관은 채무불이행자들의 부채사용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재무관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심리상담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그동안 경제적·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온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심리적인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채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주식투자나 저축과 마찬가지로 부채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금융기관의 이익과도 관련된 것이므로 금융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에서 표집하였기 때문에 밝혀진 결과를 채무불이행자들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여러 도시들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식투자자로 인한 부채사용자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외의 이유로 부채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교분석하였으나, 가계재무관리의 목표에 따라 부채의 용도가 다양할 수 있으며, 각 용도에 따라 영

향을 미치는 변인 또한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부채용도에 따른 종합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부채의 수요측과 공급측 양쪽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차용의도를 측정하였으나,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부채억제는 부채사용행동의 대칭적 과정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심리적 기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들에게 추가적인 부채의 사용은 재무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이므로, 부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데는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별도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비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 비해 주식투자형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사용된 심리적 변인들의 모델 설명력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위험지각이나 위험감수, 시간 선호, 통제위치 등의 추가적인 변인들을 고려하여 보다 더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brams, D., Ando, K., & Hinkle, S. (1998). Psychological attachment to the group: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subjective norms as predictors of workers' turnover inten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0), 1027-1039.
- Ajzen, I., Brown, T. C., & Carvajal, F. (2004). Explaining the discrepancy between intentions and actions: the case of hypothetical bias in contingent 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9), 1108-1121.
- Ajzen, I., & Driver, B. L. (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207-224.
- Ajzen, I., & Fishbein, M. (2005). *The Influence of attitudes on behavior: the handbook of attitudes*. Mahwah, NJ: Erlbaum.
- Ajzen, I., & Madden, T. J.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453-474.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Bagozzi, R. P., Baumgartner, H., & Yi, Y. (1992). State versus action orientation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 application to coupon usa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 505-518.
- Baek, E., & Hong, G. (2004). Effects of family life-cycle stages on consumer deb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3), 359-385.
- Bamberg, S., Ajzen, I., & Schmidt, P. (2003). Choice of travel mode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roles of past behavior, habit, and reasoned ac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5(3), 175-188.
- Bank of Korea. (2013). *State of the household debt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01719&boardBean.menuid=1976&boardBean.rnum=17&menuNavId=1976&boardBean.cPage=2&boardBean.categorycd=0&boardBean.sdt=&boardBean.edt=&boardBean.searchColumn=&boardBean.searchValue=>.
- Barber, B. M., & Odean, T. (2002). Boys will be boys: gender, overconfidence, and common stock invest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1), 261-292.
- Bridges, S., & Disney, R. (2004). Use of credit arrears on debt among low-income families in the united kingdom. *Fiscal Studies*, 25(1), 1-25.
- Brown, S., Taylor, K., & Price, S. W. (2005). Debt and distress: evaluating the psychological cost of credi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6(5), 642-663.
- Bryant, W. K. (1986). Assets and debts in a consumer portfol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19-35.
- Chae, E.-S., & Sung, Y.-A. (2000).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objective debt burden variables on the subjective debt burden for setting the guidelines for household debt manage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11), 1-12.
- Chien, Y., & DeVaney, S. A. (2001). The effects of credit attitude and socioeconomic factors on credit card and installment debt.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1), 162-179.
- Choe, H. (1996).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mand for credit and the effects of credit on consumption expenditur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3), 59-73.

- Choe, H. (2001). Investigation of the critical level of household debt burden using intertemporal resource alloc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5), 279-291.
- Choe, H., & Cho, H. (2008).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ebt payment rescheduling of delinqu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9(1), 25-46.
- Choe, H., & Sung, Y.-A. (2000). Review of the issues related on the use of debt by the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4), 193-207.
- Choe, H., & Sung, Y.-A. (2001). A development of household debt management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1), 235-252.
- Choi, J., & Kim, K.-J. (2003). A study of consumer e-shopping adoption behavior: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4(4), 89-103.
- Conner, M., Rachel, W., & Close, S. (1999). Alcohol consump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cognitive mediation of pas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8), 1676-1704.
- Credit Counselling and Recovery Service. (2013). *Credit recovery service record*. Retrived from <http://www.ccrs.or.kr>.
- Crook, J. (2001). The demand for household debt in the USA: evidence from the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Applied Financial Economics*, 11(1), 83-91.
- East, R. (1993). Investment decisions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337-375.
- Fekadu, Z., & Kraft, P. (2001). Self-identity in planned behavior perspective: past behavior and its moderating effects on self-identity-intention relatio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9(7), 671-686.
- Fisher, W. A., Fisher, J. D., & Rye, B. J. (1995). Understanding and promoting AIDS- preventive behavior: insights from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Health Psychology*, 14(3), 255-264.
- Gentry, L., & Roger, C. (2002). A comparison of three models to explain shop-bot use on the web, *Psychology and Marketing*, 19(11), 945-955.
- Godin, G., & Kok, G. (1996).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of its applications to health-related behaviors.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1(2), 87-98.
- Godwin, D. (1996). Newlywed couples' debt portfolios: are all debts created equall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57-70.
- Hamburger, M. J., & Zwick, B. (1977). Installment credit controls, consumer expenditures and the allocation of real resources. *The Journal of Finance*, 32(5), 1557-1569.
- Hansen, T., Jensen, J. M., & Solgaard, H. S. (2004). Predicting online grocery buying intention: a comparison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24(6), 539-550.
- Hill, M., Mann, L., & Wearing, A. J. (1996). The effect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on intention to benchmarking: a comparison between managers with experience and no experience in benchmark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7(4), 313-327.
- Huh, K. (2000). An analysis of consumer attitude on consumer bankruptcy.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1(3), 193-217.
- Huh, K. (2002). Consumption experiences and attitudes on the activities regarding borrowing and lending money. *Consumption Culture Study*, 5(1), 15-45.
- Ju, I.-S., & Lee, Y.-S. (1996). Debt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among urban households-application of systems approach-.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2), 111-126.
- Kim, K., Reicks, M., & Sjoberg, S. (2003).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diary product consumption by older adult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and behavior*, 35(6), 294-301.
- Kim, M.-R., & Kim, H.-S. (2011). Debt-use intention of young defaulters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6), 1-18.
- Kim, M.-R., & Hwang, D.-S. (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asons of consumer bankruptcy.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9(3), 121-145.
- Kim, M.-R., & Hwang, D.-S. (2010). Factors that affect the lottery purchasing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 ciation, 28(2), 1-15.
- Kim, W., & Kim, H. (2009).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debts*(Finance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380). Seoul, Korea: Bank of Korea.
- Kim, Y.-J. (2001). A comparison of the reasoned action and the planned behavior model for the prediction of leisure sports activity intention among sport center member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20, 15-28.
- Kim, Y.-S., & Kim, J.-H. (2003). A study on the investment behavior pattern in cyber stock investo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4(4), 105-125.
- Korea Exchange. (2013). *Shareholdings_investing population*. Retrived from http://www.krx.co.kr/m2/m2_5/m2_5_6/m2_5_6_1/JHPKOR02005_06_01.jsp.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Korea welfare panel study*. Retrived from <http://koweeps.re.kr/>.
-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2).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Retrived from <http://panel.kipf.re.kr/Data/CodeBook>.
- Korea Labor Institute. (2013).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Retrived from <http://www.kli.re.kr/klips/ko/codebook/1st.klips-0500>.
- Lawrence, E. C., & Elliehausen, G. (2008). A comparative analysis of payday loan consumer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26(2), 299-316.
- Lee, H. (1997). The effect of the adjusted BI model and mediating variables on gift choice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8(2), 21-41.
- Lee, H., & Kim, Y. (2000). Critiques and alternative suggestions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1(4), 21-47.
- Lee, S. (2005). An analysis on the household economic structure of the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evaluation of seriousness of economic problem of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6(1), 73-95.
- Lee, S., & Sung, Y.-A. (2007). The expenditure pattern of the indebted overspending household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1), 45-57.
- Lea, S. E. G., Webley, P., & Levine, R. M. (1993). The economic psychology of consumer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85-119.
- Lea, S. E. G., Webley, P., & Walker, C. M. (1995). Psychological factors in consumer debt : Money management, economic socialization, and credit us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81-701.
- Livingstone, S., & Lunt, P. (1992). Predicting personal debt and debt repayment: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determinan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3(1), 111-134.
- Lown, J. M., & Rowe, B. R. (2003). A profile of Utah consumer bankruptcy petitioners. *Journal of Law and Family Studies*, 5(1), 113-130.
- May, O., Tudela, M., & Young, G. (2004). British household indebtedness and financial stress: a household-level picture.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44(4), 414-428.
- Miniard, P. W., & Cohen, J. B. (1983). Modeling personal and normative influences on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69-180.
- Moon, S.-J., Kim, S.-M., & Yang, J.-S. (1996). A study on the household's debt and its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2), 157-169.
- Netemeyer, R. G., & Burton, S. (1990).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oting behavior, inten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expect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8), 661-680.
- Norman, P., & Sarah, H. (2004).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breast self-examination: distinguishing between perceived control and self-efficac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4), 694-708.
- Nunnally, J. C. (1987). *Psychometric Theory*. NY: McGraw-Hill.
- Oliver, R. L., & Bearden, W. O. (1985). Crossover effects i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 moderating influence attemp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324-340.
- Park, K., & Rhee, K. (2002). Portfolios according to the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analysis of the possession of asset and deb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3(1), 45-73.
- Prather, C. G., & Huyer, J. (1996). Profiling the consumer debt portfolio of american household: differences by income. *Consumer Interests Annual*, 42, 149-154.
- Raymond, K., & Capps, O. Jr. (1994). Impact of con-

- sumer installment debt on food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8(1), 81-95.
- Rhee, K., & Park, K. (1997). A study on the late payment behavior of the consumer credi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3), 139-152.
- Rhee, E.-Y., & Huh, E. (2005). Korean households' delinquent behavior and the determinants of debt repaym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6(1), 179-194.
- Rise, J. (1992). An empirical study of the decision to use condoms among Norwegian adolescents us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 185-197.
- Sheeran, P., & Taylor, S. (1999). Predicting intentions to use condom: a meta-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1624-1675.
- Shim, Y. (1993). The effect of household debt on expenditure patter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2), 29-50.
- Shim, Y. (1998). An analysis of the relation on the saving and debt of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Studies*, 9(1), 57-73.
- Statistics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ank of Korea. (2013). *Household Finance · Welfare Survey*.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4/index.board?bmoder=ead&bSeq=&aSeq=31020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Stavins, J. (2000). Credit card borrowing, delinquency, and personal bankruptcy. *New England Economic Review*, July/August, 15-30.
- Steidle, R. E. P. (1994). Determinants of bank and retail credit card revolvers: an application using the life-cycle income hypothesis.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170-177.
- Sullivan, A. C., & Worden, D. D. (1986).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Credit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No. 52). Indiana, USA: Purdue University.
- Sung, Y.-A. (1996).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debt burden of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in urban area.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6), 183-194.
- Sung, Y.-A. (2000). The effect of householder's occupation on the debt structures of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9(1), 21-32.
- Sung, Y.-A. (2006).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changes in household debts using panel dat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7(4), 39-60.
- Sung, Y.-A. (2010).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holding of different purpos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1(3), 29-51.
- Sung, Y.-A., & Choe, H. (2000).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use of different types of deb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2), 65-77.
- Sung, Y.-A., & Jung, H.-Y. (2008). Household financial status, credit attitude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debt delinquents: a comparison of non-delinqu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9(4), 65-82.
- Sung, Y.-A., & Yang, S.-J. (1995). A study on the debt burden and its determinants of urba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207-219.
- Sutton, S., McVey, D., & Glanz, A. (1999). A comparative test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ondom use intentions in a national sample of English young people. *Health Psychology*, 18(1), 72-81.
- Wasberg, C. A., Hira, T. K., & Fanslow, A. M. (1992). Credit card usage and household consumer debt burde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6(1), 19-32.
- Webley, P., & Nyhus, E. K. (2001). Life-cycle and dispositional routes into problem deb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2, 423-446.
- Wolswijk, G. (2006). Determinants of mortgage debt growth in EU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6(2), 131-149.
- Yilmazer, T., & DeVaney, S. A. (2005). Household debt over the life cycle. *Financial Service Review*, 14(4), 285-304.
- Zhu, L. Y., & Meeks, C. B. (1994). Effects of low income families' ability and willingness to use consumer credit on subsequent outstanding credit balanc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8(2), 403-422.

- 접수 일 : 2014년 02월 24일
- 심사 일 : 2014년 04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1일